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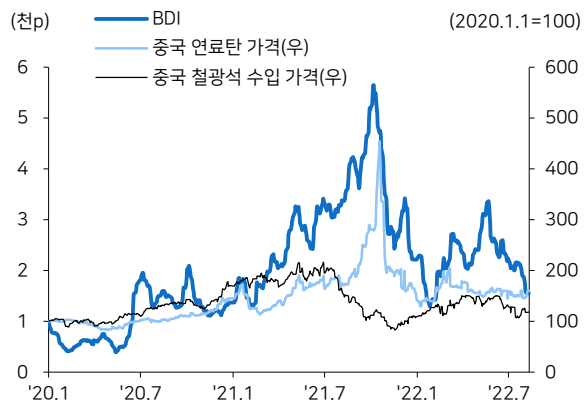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8. 12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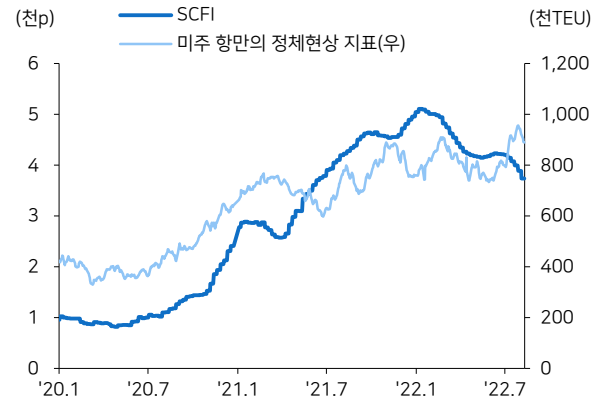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56.0p(-3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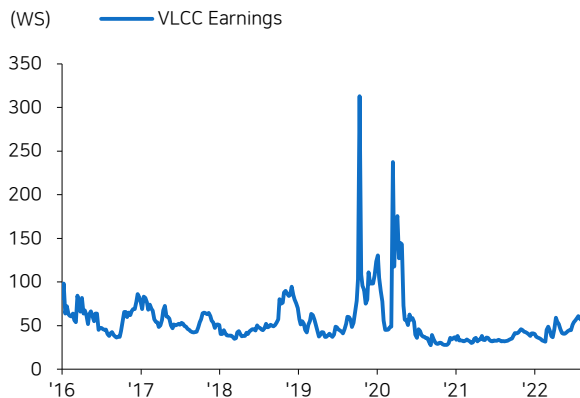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739.7p(-147.8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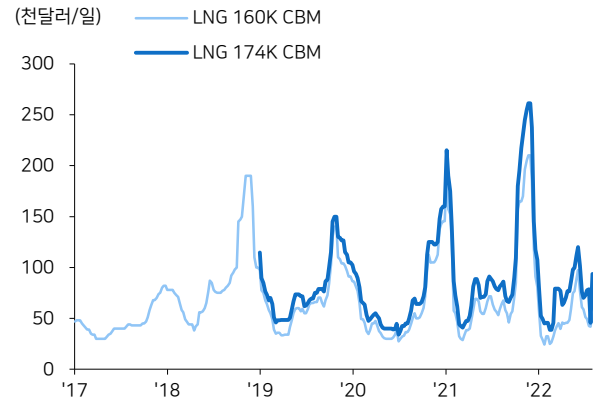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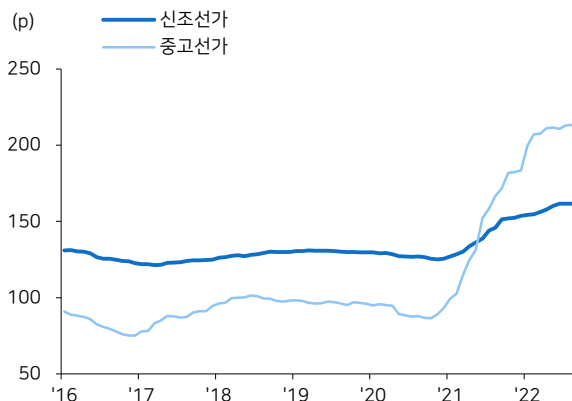
56.1p(-1.7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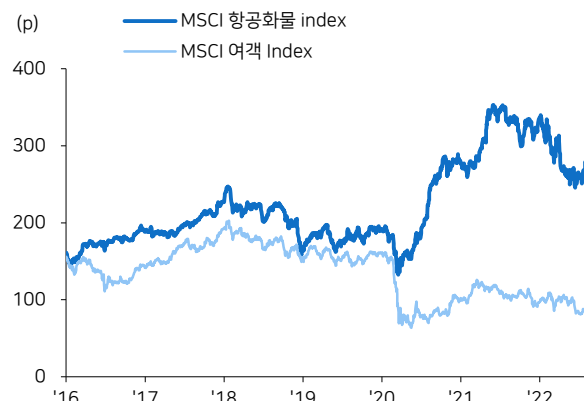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54.8p(+13.0p WoW)
93.5p(+48.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1p WoW)
213.1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86.5p(+1.1p DoD)
90.5p(-0.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HMM 민영화 추진 본격화..."공공 지분 단계적 축소"

정부가 HMM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됨. 앞서 정부는 HMM이 9년 연속 영업실적 적자를 기록하자 7.4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음.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약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3월말 기준 2.7조원임. 주식 전환시 공공지분이 높아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공지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임. (이데일리)

현대중공업,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기본설계 맡았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보도됨. 귀신고래 3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이번 입찰에서 선정된 FEED 수행사는 두 그룹인데, 1) 현대중공업-Doris Engineering, 2) Technip Energies-삼강엠앤티-Subsea 7임. 풍력 터빈 공급 업체와 공조해 부유체, 계류 설비 및 내부망 케이블(inter-array cable)에 대한 FEED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짐. (파이낸셜뉴스)

Closure of Taiwan Strait unlikely to have much impact on tankers, says BRS

대만해협 봉쇄가 탱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도됨. 싱가포르-중국북부항로에서 해협을 가로지르는 것과 대만 서쪽으로 우회할때 항해시간은 8시간차이 밖에 나지 않아 톤마일수요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함. 대만해협은 중국의 주요 원유 수출입 항로로 약 1,100만BPD의 원유가 수송된다고 알려짐. (Tradewinds)

'Significant' expected decline in boxship charter rates puts Euroseas on scrapping alert

Euroseas는 부정적 시황전망 및 신조선 인도 예정임에도 노후선 폐선을 미루고 있다고 보도됨. Euroseas는 컨테이너시황을 남은 2022년까지는 견고하겠으나 인도량 증가, 항만정체완화, 수요 감소 등으로 2023, 24년 급격한 운임 및 용선료 하락을 전망함. 그러나 2023, 24년 시황악화가 보일 때까지는 폐선을 미룰 것으로 언급함. (Tradewinds)

UN "우크라이나 곡물 월 500만t 수출 목표 달성 가능할 듯"

UN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본격화되며 매달 500만톤까지 곡물을 수출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됨. 우크라이나 농업부는 7월 곡물과 지방종자, 식물성 기름 수출이 6월대비 22.7% 증가했다고 알려짐. (MBC)

'제로코로나 완화', 중국 국제 정기항공노선 증편

중국이 코로나로 축소했던 국제 항공편 증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됨. 8월 7일부터 입국 항공편 확진자 비율에 따른 운항 제한 패널티를 2주, 4주에서 1주, 2주로 완화함. 중국이 항공편 국제 운항을 다소 풀고 나선데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패널티' 규제가 완화되며 국제 정기 항공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됨. 하이난항공의 경우 7월 이후 7개 국제노선 운항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뉴스핌)